

#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의 제32대 대통령  
2016년 노벨 평화상 수상



우측 상단에는 인권을 즐기다 라고 적혀있다. 좌측 상단에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의 제 32대 대통령 2016년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고 적혀있다. 우측 하단에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의 사진이 놓여있다. (출처:위키백과)

##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의 정치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는 1951년 8월 10일에 콜롬비아 보고타의 언론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 학사, 정치경제대학교에서 경제개발 및 공공경제학 석사를 거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M.P.A.)를 받았습니다.

알바로 Uribe 벨레스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지내다가 집권 여당 국민연합사회의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하여, 2010년 6월 20일에 끝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 6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 콜롬비아의 생인 충돌

### 콜롬비아 분쟁

콜롬비아 분쟁은 콜롬비아 영토 내에서 각자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정부, 좌파 반군, 우익 민병대 간의 장기적인 내전입니다.

콜롬비아 분쟁은 1948년 대중주의 정치가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이 암살당하면서 촉발된 라 보를렌샤 분쟁 및 그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공주의적 억압이 1960년대 콜롬비아 농촌지역에 가해지면서 자유당 및 공산당의 열성분자들이 FARC로 재조직된 과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60년대 이 분쟁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마약 밀매, 빈곤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으며, 주로 좌익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혁명군(FARC)과 정부군, 민병대 간의 충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국립역사기념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195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이 분쟁으로 220,000 여명이 죽었으며 그 중 177,307 명이 민간인이고 전투원은 40,787 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1985년에서 2012년 사이에 5백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난민 신세가 되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내실향민 집단을 형성하여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 52년 내전 종식

### 평화협정 체결

후안 마누엘 산토스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 4년 여에 걸친 협상 끝에 52년간 지속된 내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공로로 201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그는 노벨평화상 상금 전액을 내전 희생자들에게 기부하여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 체결한 평화협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지만, 후안 마누엘 산토스는 다시금 재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